

지역 정치권 '비싸고 느린 호남KTX' 반발 확산

광주시의회, 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

전남·전북도의회와 23일 국토부·코레일 항의 방문

광주시의회가 호남 고속철도(KTX)의 요금 및 속도 논란과 관련, 강력 대응방향을 밝히는 등 호남지역 정치권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호남선 KTX 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토교통부, 국회, 청와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광주시의회는 전남도의회와 전북도의회와 함께 오는 23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호남선 KTX

요금 인하나 이월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시도민은 KTX의 비싼 요금과 느린 속도에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비합리적으로 책정된 요금은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분기별 변경으로 늘어난 추가 요금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오는 23일 국토부를 항의방문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호남 KTX 운행계획의 요금과 속도 논란과 관련해 19일 예정된 KTX 시승식 행사에 불참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문제가 되는 요금 인상과 관련, 2005년 당시 진행됐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현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정부 측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천안이 아닌 오송으로 호남KTX 분기역이 결정되면서 정부가 우회거리 19km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당시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의 질의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9km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남 분들의 이용 편의라든가 부담 증가액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과거부터 추가부담은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고 방침"이라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과 전남, 전북도당도 지난 13일 호남고속철도(KTX) 요금이 경부선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돼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재자 광주시당, 황주홍 전남도당, 유성업 전북도당 위원장은 "왜 호남선 KTX가 경부선보다 더 비싸야 하는가"라는 성명을 내고 요금 재조정을 요구했다.

/최권필기자 cki@kwangju.co.kr

유일호 장관 "호남선KTX 요금 해결책 모색"

새정치 황주홍 의원 밝혀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황주홍 위원장(장흥·영암·강진)은 18일 "호남고속철도 요금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촉구한다"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05년 추병직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도 약속한 만큼 요금과에 대한 최근 논쟁에 대해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추병직 장관은 당시 "호남고속철 오송역 분기에 따른 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고속

철에 적용되는 할인율 평균을 호남고속철에 대해서는 더 높게 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위원장은 이날 "유 장관은 과거 추병직 장관도 약속한 만큼 현재 할인을 적용 방침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최종 요금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광주송정~용산) 개통을 앞두고 요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원들이 18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고속철도(KTX)의 합리적인 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고가 장비 방치 조사

1000억 상당 562개 구매·관리·감독 실태 등

전남도가 출자·출연기관의 고가 연구장비 일부가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3월17일자 1·3면)과 관련 장비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 환경산업진흥원 등 4곳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998억6200만원 상당의 562개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구매 자체가 잘못됐는지 여부와 구매 이후 수요 감소 원인 등을 파악한 뒤 기동률 상승 대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각 담당 실·과에서 작성하기로 했다.

김영선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출자출연기관 경영진단에서도 일부 문제가 드러나기는 했으나 전문적인 분야여서 전남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해당 기관들이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맡은 담당 실과

에서 자체적인 개선안을 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문제가 제기된 기관들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남테크노파크와 생물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다른 소규모 출자·출연기관과 마찬가지로 3명의 인원이 5일간 감사에 나서면서 장비 사용실태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기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금까지 고가 장비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올 초 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원 이 9억6833만원의 예산으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설비'를 구입하고 3년 이 넘도록 조장을 구성하지 못하는 등 고가 설비를 방치했다는 문제 제기가 거의 유일했다.

이들 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은 물론 이후 감사마저 허술했다는 것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혁신도시 운행 택시 요금 조정

공차거리 일정부분 반영

미터기 요금 30% 가산

광주시는 광주에서 혁신도시를 목적지로 운행하는 광주택시 요금을 조정, 일원화해 오는 23일 0시부터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조정안에 따르면, 광주에서 혁신도시로 운행한 후 혁신도시에서 광주로 반차로 올 수밖에 없는 광주택시에 대해 공차 거리를 일정 부분 반영, 최종 목적지 미터기 요금의 30%를 가산 징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송정역에서 혁신도시까지 정액요금 2만 5000원에서 1만8000~1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시는 당초 혁신도시 전체를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려 했지만 택시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추진이 지연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긴급 보완대책으로 요금을 조정했다.

시는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입주기관에 요금 조건표를 공문 발송해 소속 임직원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조합에는 요금표를 인쇄해 전 조합원에게 23일 이전에 모든 택시(8209대)에 비치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호남선KTX 개통에 대비해 송정역 인근 3개 재래시장을 대표적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재래시장을 외지인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는 18일 "내달 2일 호남선KTX가 정식 개통됨에 따라 송정역 인근 송정매일시장과 송정5일시장, 역전매일시장 등 3개 시장을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방정가

김동찬 "KTX송정역 경유 직행버스 전면 도입을"

광주시의회 김동찬(북구 5)의원은 18일 KTX 호남선 개통과 관련 "도시철도 1호선 접근역을 제외한 주요역역에 직행버스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부산, 인천, 심지어 목포시에서도 KTX와 연계한 직행버스를 코스별로 운행하는 등 최단거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일곡~양산~첨단 2~첨단~수완~사암로~송정 ▲운암~순환~송정 ▲봉선~남구



청~풍암~금호~2순환~송정 ▲진철도 1호선 접근역을 제외한 주요역역에 직행버스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시내버스 노선대로 모 든 송정역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송정역에서 목적지 까지 가는 시간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직행버스 도입은 KTX 본래 취지인 신속성을 살리는 좋은 교통대안이 되리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용집 "차이나프렌들리 정책 효율적 추진을"

광주시의회 김용집(비례)의원은 1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는 차이나 프렌들리 핵심 사업으로 18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연구·검토를 거친 것이 아니다"면서 "민선 6기 시장 공약 추진에 맞춰 성급하게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보다는 홍보에 치중해 짜 맞추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구지향적인 '차이나 프렌들리'라는 영어식 용어보다 중국과 중국인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중국어식 표현으로 먼저 바꿔야 한다"면서 "특히 중국 특화거리 라는게 인천처럼 중국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

거나 출입국을 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마치 계획도시처럼 먼저 거리를 조성하고 중국인들을 유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사업추진으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권필기자 cki@kwangju.co.k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자,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번역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무출신 여성' 희망 33-67세</p> <p>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가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강남역 7번출구 70m 442명 810 68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